

이탈리아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작품을 중심으로 -

나 현 신

Hickey Freeman 디자이너, Cornell University, Visiting Fellow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Italian Fashion - Through the Artworks of Versace and Armani -

Hyunshin Na

Designer, Hickey Freeman, Visiting Fellow, Cornell University
(2004. 3. 24 투고)

ABSTRACT

To date, Italian fashion runs the top even its rise is far behind Paris and New Y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fashion through two representative designers who contributed to Italian fashion.

Italy had unique industrial system and craftsmanship from the history and sense of the beauty and the uniqueness from the culture. After the World War II, Italy started to produce elegant sportswears influenced by the progressiv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practical culture of America.

Italian fashion of 'easy elegance' is spearheaded by Versace and Armani.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Italian fashion which are shown in the artworks of them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Versace dated from southern sensibility are sensualism, expressionism, historicism.

- 1) Sensualism: tight silhouette, overexposure, glamorous form, brilliant color, fabric showing femininity, gaudy accessories
- 2) Expressionism: brilliant print and color, trimmings and accessories
- 3) Historicism: form and motifs that are shown in the historical costume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Armani succeeded from northern tailoring are purism, func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 1) Purism: clean lines, architectural and geometric forms, natural body line, neutral tones, luxurious fabric
- 2) Functionalism: functional form, neutral tone, natural fabrics

3) Multi-culturism: design and motif inferred from ethnic costume

As such, competition between two different groups made it possible that Italian fashion occupies a special place in the international fashion system.

Key words : sensualism(관능성), expressionism(표현성), historicism(역사성), purism(순수성), functionalism(기능성), multi-culturism(다문화성)

I. 서론

오늘날 이탈리아는 뉴욕, 파리를 비롯한 세계 패션의 3대 주자 중 하나로 국제 패션 시장을 리드하는 디자인 선진국이다. 과거 역사상 영국, 프랑스의 하청 생산국 역할만을 했던 이탈리아가 지금은 프랑스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프랑스의 하이패션만을 갈망하던 미국인들도 이탈리아 패션의 캐주얼 엘레강스를 포용하였다. 이탈리아 패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2003년 2월 11부터 4월 12까지 뉴욕의 FIT 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패션, 이탈리아 패션(Fashion, Italian Fashion)”展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2차대전 이전의 이탈리아는 소수의 꾸뛰리에만이 활동하던 농업국가에 불과하였고 전후에는 경제적인 폐허로 더욱 황폐화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패션 강대국으로의 도약은 전후 50여 년의 급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1970년 후반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마니와 베르사체가 세계 패션에서 크게 주목되었다. 결국, 현 패션에 있어서 돌체 & 가바나(Dolce & Gabbana), 아르마니(Giorgio Armani), 제나(Ermenegildo Zegna), 펜디(Fendi), 구치(Gucci), 페레(Gianfranco Ferré), 크리자(Krizia), 비아조티(Laura Biagotti), 막스마라(Max Mara), 밀라 쉰(Mila Schön), 미소니(Missoni), 모스키노(Moschino), 프라다(Prada), 로미오 질리(Romeo Gigli),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발렌티노(Valentino), 베르사체(Gianni Versace) 등의 이탈리아 제품(Made in Italy)은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을 가진 명품으로 굳게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패션에 관한 국내 연구¹⁾는 섬유

산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실시되었던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다수가 선행되었지만, 산업적인 측면이나 개개의 디자이너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디자인의 경향이나 특성에 대한 검토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패션 시장에서 막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패션을 디자인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인 패션국으로 이탈리아를 리드한 2인의 디자이너-베르사체와 아르마니-를 통해 이탈리아 패션이 가지는 미적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때 전자는 남부의 감성에서 비롯된 열정과 화려함에 노스텔지어가 융합된 디자인을, 후자는 북부 테일러의 수공 전통에 바탕을 둔 순수성과 기능적 미학에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접목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패션 사학자 벨러리 스틸(Valerie Steele)은 이탈리아 패션의 발전 원동력을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그룹간의 지속적인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리스토퍼 브루워드(Christopher Breward) 역시 스틸의 견해를 지지하며 이탈리아 패션을 설명하고 있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의 2인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를 통해 이탈리아 패션의 내적 특성을 분석,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선행 연구 문헌과 학술잡지 등을 통해 이탈리아가 가진 문화적, 산업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이탈리아 패션의 형성배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자이너 2인의 생애와 작품 분석을 위해 패션 관련 문헌 및 기사를 수집하였고 디자이너의 작품집을 기준으로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특정 컬렉션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 자료를 보충하였다. 즉,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에 따라 이탈리아 패션이 가지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II. 이탈리아 패션의 형성배경

패션은 문화의 일환이며 패션 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의 주요 문화 산업이다. 이탈리아 패션의 성공 또한 그들이 가진 오랜 지형적 문화적 역사와 독특한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결코 하루 아침의 신화가 아니다.

따라서 본 장은, 이탈리아가 가지는 지형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탈리아 패션이 국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차 대전 이후를 중심으로 그 발전 과정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1. 지형 문화적 배경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긴 지형의 반도 국가로 북부는 찬 대륙성 기후, 중남부는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대별되며 이에 따라 생활 양식과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적 통치보다는 도시 국가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특유의 사회적, 상업적, 전통적 관습이 남아있으며 서로 다른 직물과 물자가 특색을 이룬다. 이 가운데, 가족을 매우 중시 여기는 이탈리아인들은 가족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수공의 전통을 전승하였고, 따라서 근대 공업화 시대에 급성장한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 단위의 소규모 형태로 발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3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중세부터 동방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의 비단 등 고급 직물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제조 기술, 풍부한 수자원과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으로 염색 산업 등의 섬유 산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유럽 내에 위치하므로 시장 상황, 소비 패턴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생산과정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으며, 원료 공급처 및 완제품 운송비의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는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 예술적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은 나라로,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수한 문화는 이탈리아 패션의 성공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테, 보카

치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널리 알려진 문학, 철학, 조각 분야 외에도 성악, 오페라 등의 예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처럼 여러 예술이 어우러진 생활 환경 속에서 축적된 높은 문화적 감각은 미에 대한 사랑, 독특한 창조력과 컬러 감각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어릴 때부터 강조된 예술 교육, 아름다운 문화유산 속에 축적된 미적 감각과 미에 대한 남다른 사랑에 기업가들의 투철한 장인정신이 합쳐져 오늘날의 이탈리아 패션을 탄생시켰다.

2. 산업적 배경

19C 후반 프랑스의 꾸뛰르가 탄생하자 이탈리아는 뛰어난 소재, 특출한 장인정신에도 불구하고 국제 패션 제국인 프랑스의 종속국이 되었고 뛰어난 숙련 공들은 자수, 액세서리 등의 정교한 수공제품을 위해 프랑스 꾸뛰르에 고용되었다. 계속해서 1950년 이전까지 이탈리아는 프랑스, 영국의 하청 생산 기지에 불과하였고 미국 바이어들에게 이탈리아 제품은 프랑스의 고가품에 대한 싸구려 대체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국제 패션 속에서 진정한 이탈리아 패션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시스템의 발전은 2차 대전 이후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탈리아 패션의 부흥 (Reconstructiong Italian Fashion: America and the Development of the Italian Fashion Industry)』에서 니콜 화이트(Nicole White)는 '이탈리아 패션의 부흥에 있어서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인 마셜 플랜(Marshall Plan)을 계획하였고, 이와 같은 미국의 재정적 지원은 이탈리아 북부의 직물 산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고성능 기술을 제공하여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원조는 1950, 60년대에 도 지속되었다.³⁾

뿐만 아니라, 당시의 미국은 이탈리아의 문화적 모델로서 이탈리아의 제조업자와 소비자 모두는 할리우드 영화와 새로운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비치는 미국의 모더니티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보유한 방대한 생산능력과 과잉자

본의 배출구였으며 미국은 발전하는 이탈리아 패션의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자리하였다.

1960년대는 세계 경기의 호황과 소득 향상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간편하고 저렴한 기성복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신사복으로부터 숙녀복, 아동복 등 전 품목에 걸친 기성복화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크리치아, 아르마니, 미소니 등의 우수한 디자이너가 독자 브랜드로서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1950, 60년대 에밀리오 푸치는 선명한 색상의 실크 저지르된 세퍼레이츠로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다. 또한 발렌티노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감각으로 소피아 로렌, 재클린 케네디 등과 같은 명성 높은 고객을 보유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탈리아 패션 산업은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기의 위축과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저가품 생산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제품 생산의 목표를 중저가에서 중고가 이상의 고품질·고가품으로 전환하였고, 단순한 설비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고도의 장인 정신과 숙련된 기술을 최신 설비와 잘 융합시킨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개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하이 패션의 고급 기성복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고, 소재 전시회 등으로 패션 산업의 진흥을 꾀하였다.

1978년에는 밀라노 컬렉션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대등한 위치로 부상하였고 80년대에는 독자적인 이탈리아 패션으로 세계 패션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 와서는 세계 최강의 위치를 석권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탈리아 패션은 지형 문화적 배경으로 한 차별화된 산업 구조와 숙련된 기술, 미적 감각과 독창성에 전후에 도입된 기성복 생산의 진보된 기술과 미국적 실용 문화의 혼합으로 캐주얼 엘레강스를 특징으로 하는 탁월한 스포츠웨어로 전세계 시장을 매료시키고 있다.

Ⅲ. 디자이너 분석 및 비교

아르마니의 고용주였던 니노 체루티(Nino Cerruti)는 이탈리아 패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르마니는 이탈리아 패션의 선두 주자이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이탈리아에는 오직 직물 산업만이 있었을 뿐, 패션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1974년 이후, 아르마니와 베르사체는 극적으로 발전하는 이탈리아 패션의 상징이 되었다. 아르마니는 평범한 사람들 쪽에 근접하며 베르사체는 극단적인 고객들에게 어울린다.”⁴⁾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패션은 대조적이다. 베르사체는 베이지 색상 대신 선명한 노랑을, 잔잔한 꽃무늬 대신 팝아트 프린트를 사용하였다.”⁵⁾ 라는 기사 또한 그들의 대조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간략한 실례이다.

본 장에서는 이탈리아 패션의 발전 원동력을 ‘우아함(Elegance)과 관능성(Sensuality)으로 대별되는 서로 다른 그룹간의 지속적인 경쟁’이라고 규정한 벨러리 스틸의 견해에서 출발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디자인을 분석, 비교하였다.

1. 베르사체

다음은 열정적인 남부 감성을 대표하는 베르사체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작품 특성을 관능성, 표현성, 역사성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생애

베르사체는 1946년 이탈리아 남부의 칼라브리아(Calabria) 태생으로, 건축 교육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테일러링 스튜디오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1960년대 후반, 가족의 회사에서 바이어 역할로 파리와 런던을 오가며 이탈리아를 둘러싼 국외의 패션에 관한 유용한 지식을 얻었으며, 이후 밀라노에서 73년부터 75년까지 여러 브랜드의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

1978년 자신의 라벨인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를 설립하여 여성복과 남성복 컬렉션을 소개하였고, 여기서 형인 산토(Santo)는 경영을, 여동

생 도나텔라(Donatella)는 홍보와 디자인을 맡아 운영하였다.

1982/83 f/w 여성 컬렉션에서 가장 훌륭한 패션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로치오 도로(L'occhio d'Oro)상 수상하였고 남달리 많은 무대 의상 제작에도 참여하였으며, 런던의 빅토리아 & 알버트(Victoria & Albert) 박물관에서는 1985년 그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1989년에는 뉴라인 베르수스(Versus)를 통해 젊은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그 밖에도 클래식 라인인 시그네처(Signature), 스포티 캐주얼 라인인 이스탄테(Istante)를 발표하였다. 창작성과 사업성, 예술성 모두가 뛰어났던 그는, 의류에서 뿐 아니라 액세서리, 향수와 인테리어 제품, 라이센스 사업 등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1997년 7월, 마이애미 저택에서 동성 연애자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후, 베르수스 라인을 맞고 있던 여동생 도나텔라가 디자인을 맡고 있다.

2) 작품 특성

① 관능성

패션 사학자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은 전 세계의 부유하고 글래머러스한 남녀를 위한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의상으로 이름을 떨친 베르사체에 대해 “그는 디자인의 영감을 매춘부나 거리의 여인으로부터 찾아 대중 스타를 위한 의상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과장되고 매혹적인 의상, 이탈리아의 명감독 펠리니(Fellini)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관능성, 드라마틱한 색상을 무대에 올렸다.”라고 기술하였다.⁶⁾

그의 의상 대부분은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는 타이트한 실루엣,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슬릿 등 대담한 커팅(cutting)에 의한 과감한 노출로, 섹시함을 추구하는 무비 스타와 록 뮤지션 등에 의해 사랑 받았다. 1994년 s/s에 발표된 후, 여배우 엘리자베스 헐리(Elizabeth Hurley)의 드레스로 유명해진 안전핀 장식의 검정색 실크 가운은 여성 인체를 파격적으로 노출한 글래머러스 스타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그림 1>

또한 그는 퇴폐적인 동성애와 페티시즘에 관련된 스타일의 요소들도 하이 패션에 과감히 등장시켰다. 예컨대, 본디지(Bondage) 컬렉션에 발표된 코르셋

드레스는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는 컷, 가죽끈과 투명한 네트 소재로 인체를 노출한 의상 디자인으로 도발적인 포즈와 에로틱한 눈빛의 관능적 모델에 의해 연출되었다.

이와 같은 베르사체의 패션은 미와 추, 우아함과 키치, 고급과 저급함, 엘리트와 대중간의 구분이 부재한 20세기 후반의 패션 규범

속에서 등장한 저속하고 천박한 패션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예를들어, “베르사체의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때로는 화려함을 무색케 했다: 의상은 종종 천박해 보인다”⁷⁾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베르사체는, 과감한 노출 혹은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강조된 글래머스한 형태를 드라마틱한 색채, 여성적인 매력기 갖는 실크, 레이스, 새틴, 시드루의 네트 소재로 구성하고, 안전핀, 가죽끈 등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요소들과 믹스시켜 관능성을 추구하였다.

② 표현성

베르사체는 색상에 대한 영적 감각의 소유자로, “색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 색상은 착용자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까지 빛을 던져주고 활기를 되찾아주며 정신을 고양시키고 기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라고 색을 예찬한다. 선명한 원색의 색상들을 탁월한 감각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열정과 화려함을 나타내며, 때문에 강한 개성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독특하며 실험적인 소재의 쓰임과 복잡한 프린트 소재의 사용 또한 표현적인 그의 디자인 세계를 뒷받침한다. 1980년대 초에는 뱀 가죽 효과의 메탈릭 소재를, 1983/84년, 겨울 폴



<그림 1> 인체를 파격적으로 노출한 안전핀 장식의 검정색 실크 이브닝 가운, s/s. 97, 『Gianni Versace』, p. 31.

렉션에서는 스트라이프 효과를 내는 트 워드를 고안하였고, 1994년 폴리우레탄 에 프린팅 하는 기술과 고무의 사용을 실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재를 재고안 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가죽과 쉬폰, 마섬유와 금색 메탈 소재, 메탈릭 메쉬 와 비즈 등과 같이 부조화스러운 소재의 예사롭지 않은 결합에서도 잘 나타나며, 전통적으로 재킷에 사용되던 가죽을 이 브닝웨어에 사용하는 예상치 못한 소재 의 쓰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의상에 사용된 트리밍 및 액세서리는 장식적인 그의 의상을 완성시킨다. <그림 2>는 선명한 색의 비즈 탑을 가죽 재킷, 쉬폰 스커트와 매치시킨 의상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화려한 비즈와 자수 장

식, 소재의 파격적인 믹스 등은 “베르사체 의상을 착용한 여성들은 언제나 눈에 띈다(Versace woman never goes unnoticed).⁸⁾”라는 말을 대변하듯 현란함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의상은 표현적, 수사적 모드”라는 베르사체의 주장⁹⁾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스포츠웨어에서 여밈의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던 금속의 징(stud) 장식을 규칙적인 패턴으로 사용하여 검정색 가죽 양상블의 가장자리를 그리스 뇌문으로 장식하고 의상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상과 같이, 베르사체는 앤디워홀적인 대담하고 화려한 색채, 실험적인 소재 혹은 소재의 독창적인 믹스, 화려한 프린트, 과장된 액세서리와 트리밍 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전개하였다.

③ 역사성

베르사체는 과거 역사와 문화를 모체로 한 디자인 세계를 펼쳐나갔다. 그는 방대한 역사 속에서 참고의 근원을 끌어내고 이를 현대의 떠들썩한 감각과 결합시켰다.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고대, 비잔틴, 18C, 1920/30년대에 이르는 4개의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두고있다.¹⁰⁾

하우스의 로고로 사용된 메두사 머리 원형장식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신고전주의적



<그림 2> 다채로운 색상의 화려한 비즈와 자수로 장식된 탑, 가죽 재킷, 쉬폰 스커트, f/w, 91-92, 『Gianni Versace』, p. 79.



<그림 3> 고대의 전통미가 현대적 감각과 결합된 비대칭적 헬라인의 엠파이어 드레스, s/s, 95, 『Gianni Versace』, p. 69.

취향을 대표한다. 그 외에도 얇고 투명한 거즈를 스팅글과 크리스탈 비즈로 장식한 엠파이어 드레스, 드레이프의미를 강조한 실크 저지 드레스들은 비너스와 아르테미스 등 그리스의 대표적인 여신들을 연상시킨다.¹¹⁾ <그림 3>은 플리츠로 레이된 비대칭적 헬라인의 저지 이브닝 가운데로, 고대 그리스 로마 복식의 전통미가 오늘날의 문화와 아이디어에 결합되어 독창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1997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비잔틴의 영광”展은 꿈, 화려함, 웅장함이 넘치는 세계로 그를 불러들였고 비잔틴 제국의 모자이크 양식이 풍부한 라베나(Ravenna) 지방은 영감의 출처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정교한 모자이크화를 비즈와 자수로 재현하기도 하고, 메탈 메쉬 소재에 입체적인 애플리케를 이용하여 신성한 십자가를 세속적인 의상의 모티브로 도입하였다.

그의 바로크적 감각은 화려한 프린트에서 엿볼 수 있으며, 풍부함, 화려한 색상, 유희적인 이미지 등을 특징으로 하는 18세기의 복식의 요소들 또한 현대적 아이템과 믹스되었다. 즉, 빠니에 혹은 페티코트로 구성된 풍성한 스커트를 진 재킷 혹은 셔츠와, 장식적인 애플리케와 비즈로 화려하게 장식된 부스티에와 재킷을 청바지와 매치시켰다. 그 밖에도 비오네, 마담 그레, 아르데코를 참고로 한 1920, 30년대의 엘

레깅스에 관능미를 가미시켜 재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베르사체의 작품은 과거 복식의 형태 및 문양을 작품 속에 소개하고 이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역사성을 특징으로 한다.

2. 조지오 아르마니

다음은 금욕적인 단순성에 북부의 테일러드 수공 전통을 계승시킨 아르마니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작품 특성을 순수성, 기능성, 다문화성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생애

아르마니는 1934년 이태리 북부 피아첸자(Piacenza)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생하여 2차대전 속에서 가난한 어린 생활을 보냈고 전후 밀라노로 이주하였다. 가족들의 권유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3년 후 의료 보조원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에는 갑자기 진로를 전환하여 밀라노 중심에 위치한 백화점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시작하였고, 얼마 후 남성복 바이어를 보조하게 되었다. 그 후, 니노 체루티의 남성복 라인에서 8년간 디자이너로서 일하면서 패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특히, 당시의 경험은 그에게 정확한 재단과 소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훗날 그가 환상적인 직물 기술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 토대가 되었다.

1975년 그는, 건축을 전공했던 친구인 서지오 가레오티(Sergio Gareotti)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의 이름 하에 첫 남성복 컬렉션을 성황리에 발표하였다. 뒤이어 여성복을 선보인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톱 디자이너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80년대에는 아메리칸 지골로(American Gigolo) 등을 비롯한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명성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르마니의 오리지널 클래식 룩에 젊음과 유행을 가미한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저렴한 가격의 아르마니 익스체인지(Armani Exchange) 등 아르마니에서 뿔어 나온 여러 브랜드를 통해 신사복과 숙녀복은 물론 유아복, 란제리, 수영복, 벡타이, 향수, 신발, 안경, 보석에 이

르기까지 디자이너와 사업가로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이룩하였다.

1982년에는 패션 디자이너로서는 디올(Dior) 다음으로 타임즈(Times)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영광을 얻었고, 2000년에는 구겐하임 박물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아르마니의 회고전이 진행되었다.

2) 작품 특성

① 순수성

조지오 아르마니, 켈빈 클라인, 질 샌더는 '클린 쉬크(clean chic)'를 추구하는 '순수주의(purism)'의 그룹'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식적인 것은 모두 배제하고 트리밍 및 액세서리의 사용을 제한하며, 그레이, 화이트, 베이지 등의 중성톤을 사용하고 섬세한 직물과 완벽한 맞춤새를 중시한다. '뉴클래식'이라고도 불리는 그들의 작품은 명료함의 원칙 속에 건축적, 기하학적인 형태와 단순성을 추구하는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디자이너의 수준 높은 창조성을 요구한다."¹²⁾

이 가운데, 아르마니는 이탈리아 패션을 정의하라는 물음에 "신비스러운 매력에 있는 것으로 표현에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답했다.¹³⁾ 따라서 20세기 후반의 패션이 보여주기 위한 걸치레와 화려함으로 치달을 때에도, '우아함이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Elegance doesn't mean being noticed, it means being remembered)¹⁴⁾이라는 '신념으로 절제의 미학을 선보였다.

인간이 의상에 속박된 상태를 가장 경멸했던 그는, '인간과 의상이 하나가 되는 상태, 즉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체의 거추장스러운 치장이 배제되어야 하며 고급스럽지만 지나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원칙을 의상에 적용시켰다.¹⁵⁾ 여유있게 드레프된 실루엣은 보는 이의 시선을 여성의 인체로부터 떨어뜨려 자연스러운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단아한 라인을 형성한다.(그림 4) 즉, 입고도 입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지적이며 우아한 의상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패션 철학이며, 이는 그를 '패션의 제왕, 킹 오

브 밀라노'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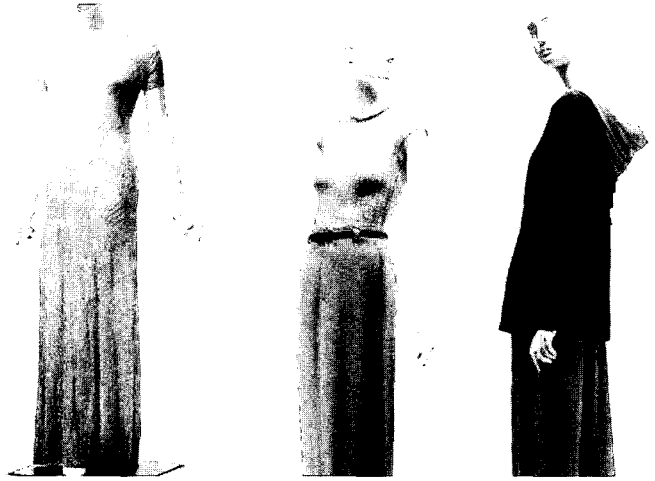
단지 의상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포함한 모델의 이미지 또한 아르마니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데, 성적 매력, 과장이나 두드러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모델은 마르고 큰 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우아하고 귀족적인 자세를 나타낸다.

이처럼 건축적, 기하학적인 형태,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을 구성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라인, 우아함이 강조되는 중성톤의 고급스러운 소재로 구성된 아르마니의 독특한 스타일은 깨끗하고 꾸밈없는 우아함과 복잡하지 않고 정제된 편안함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의 순수성을 추구한다.¹⁶⁾

② 기능성

아르마니는 현대 패션의 복잡성과 다양성 속에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꾸준히 착용되는 패션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197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변치 않는 그만의 스타일을 고수해 왔다. 코코 샤넬 이후 패션에 위대한 영향력을 갖는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아르마니에게 있어 창조의 원동력은 그의 남성복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기능주의이다.

'재킷의 왕자'인 아르마니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경직된 비즈니스 수트 대신, 패딩이 생략된 경사진 어깨, 땃땃한 심지가 제거된 부드러운 재킷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저널리스트 주디스 터만(Judith Thurman)은 "남성다움을 없애지 않고 그들의 옷을 에로틱하게 무장시켰다"라고 기술했다.¹⁷⁾ 이러한 남성복의 테일러링을 여성복에 적용시켜 남성만이 착용하던 파워풀한 유니폼을 전문직 여성에게 선사하였다. 오늘날, 아르마니 상표는 성공을 추구하는 혹은 이미 성공한 여성의 파워 수트와 동의어가 되었다.¹⁸⁾ 이처럼 기능에서 도래한 실용적이며 심미적인 그의 재킷과 코트는 인체를 가볍게 타고 내리듯 편안하게 착용되었고 평상복 뿐 아니라 이브닝 웨어에



<그림 4>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이브닝 가운, s/s, 97, 『Giorgio Armani』, p. 241.

<그림 5> 머슬 티와 후드 달린 스웨트 셔츠로 구성된 엘레강스 캐주얼, f/w, 98/99, 『Giorgio Armani』, pp. 146-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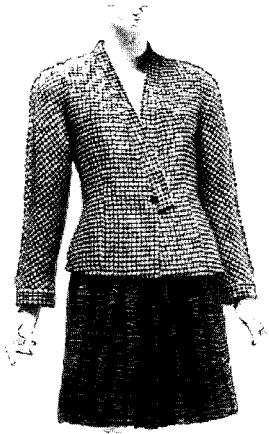
까지 적용되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캐주얼의 대가로 평가받는 아르마니는 이태리가의 가장 미국적인 디자이너로, 실용적인 평상복의 필수 아이템인 머슬 티(muscle tee)나 후드 달린 스웨트 셔츠(sweat shirt) 등을 고급스러운 스포츠웨어에 수용하였다.<그림 5> 소재 또한 캐시미어, 울 실크 등 고급스럽고 유연한 자연 소재를 즐겨 사용하며 다른 색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채 팔레트를 선호하는 그는 자신의 컬러 스토리에 대해 "나는 이러한 중성 톤을 사랑한다. 이는 조용하고, 잔잔하며, 누구나 소화할 수 있고 어느 색과도 어울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⁹⁾

이상과 같이, 아르마니는 불필요한 장식, 과장, 기교가 배제된 기능적 형태, 여러 색들과의 조화가 용이한 중성톤, 자연 친화적인 소재 등으로, 보여주기 위한 걸치레의 패션이 아닌 실생활에 부합하는 이지 투 웨어(easy to wear)의 기능적 패션을 전개하였다.

③ 다문화성

1980년대 아르마니는 문화의 장벽을 허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바탕으로 엑조틱 스타일을 펼쳐나갔다. 특히, 동서양을 혼합하려는 시도로 아시아의 시각적, 정신적 보물들로부터 영감을 끌어왔다. 그는 동양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6> 일본의 기모노 깃 형태를
믹스시킨 테일러드 재킷과 큐롯,
f/w, 80/81, 『Giorgio Armani』, p. 191.

“1980년대 콜렉션은 동양에 대한 참고로 가득차 있다. 일본의 사무라이, 중국의 황제, 몽고의 유목민, 인도의 대군 등이 가지는 위엄, 침착성, 호화로움, 덕성 등은 나를 매혹시킨다...동양에 대한 나의 관심은 스타일에 대한 일시적인 흥미가 아니며, 이는 그 문화가 가지는 정

신에 대한 오랜 취미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⁰⁾

오리엔탈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사용한 기호들은 직설적인 인용이라기보다는 암시의 형태로 보여졌다. 인도의 남성복에서 유래한 튜닉 셔츠와 조끼 앙상블, 북아프리카의 젤라바(djellabah) 혹은 모로코의 카프탄과 유사한 재킷,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튜닉, 일본의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은 랩 여밈의 재킷, 중국의 마오 유니폼에서 비롯된 스탠딩 칼라의 싱글 재킷 등에서 이국풍의 요소들은 현대적 감각과 융합되어 어렵פות한 윤곽만을 그려낸다. 아르마니는 일본 무사의 화려한 의상 뿐 아니라 농부의 소박한 의상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림 6>은 일본의 봉건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부터 출발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평상복을 현대의 밀라노적 스포츠웨어 감각과 믹스시킨 작품이다. 흠없이 테일러드 된 재킷에 기모노의 깃을 묘사한 밴드 칼라를 결합한 이 재킷에는 민속지적인 참고뿐 아니라 모더니티의 감각이 함께 공존한다.²¹⁾

이처럼 타문화에서 비롯된 영감의 출처들은 재해석되고 조합되는 문화적 퓨전을 통해 희미하게 나타난다.²²⁾ 예를들어, 그는 일본의 오비, 북아프리카의 젤라바, 마오 재킷 등을 함께 코디시키기도 하고 북아프리카 남성들의 튜닉에서 기초한 칼라 없는 셔츠와 남성의 드레스 수트를, 인도의 파자마 팬츠와 여성의 테일러드 재킷을 믹스시키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전통적인 민속 복식에서 사용되던 모티프 등도 종종 인용되어, 이슬람 패턴에서 나타나는 꽃무늬와 작은 기하학적 모티프, 중국의 곤룡포에서 비롯된 모티프, 일본의 장식적인 미술 형태 등이 장식적으로²³⁾ 표현되었다. 또한 카프탄과 젤라바에서 사용된 자수, 비즈 장식을 실크 오간자에 비즈 장식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역사 혹은 일정한 테마 등에서 비롯된 특정한 패션의 원천을 거부하는²⁴⁾ 아르마니는, 타민족의 민속복에서 비롯된 형태, 모티프 등을 폭넓게 수용하여 절충하는 다문화성을 특징으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3. 이탈리아 패션의 특성

이탈리아를 패션을 세계적인 패션으로 리드한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작품의 미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상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패션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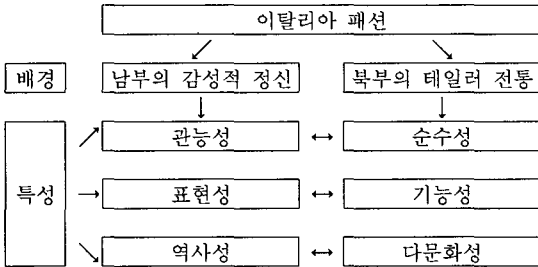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이탈리아 패션은 상반된 특성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열정적인 감성을 배경으로 한 남부 출신의 베르사체로, 관능성·표현성·역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 세계를 구사하였다. 우선, 그는 자신만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개인 양식을 바탕으로, 인체를 구속하는 타이트한 실루엣, 과감한 노출, 강렬하고 열정적인 색채, 여성미를 강조하는 소재로 관능성을 표현하였고, 화려한 색상과 프린트, 독창적인 소재와 믹스, 과장된 액세서리와 트리밍으로 표현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적 취미로 과거 복식의 형태를 현대 패션에 재출현시켰으며 메두사 머리를 응용한 원형 로고, 바로크적 프린트와 그리스 너문 또한 역사성에서 근거한 과거의 참고를 잘 설명해 준다.

후자는 금욕적 단순성에 테일러드의 수공 전통을 계승시킨 북부 출신의 아르마니로, 순수성·기능성·다문화성을 특성으로 한다. 보편적인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시대 양식을 추구하는 아르마니는,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을 따라 흐르는 여유로운 실루엣, 두드러지지 않는 중성톤의 색채, 고급스러운 소재로

<표 1>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작품의 미적 특성

디자이너 특성 요소	베르사체			아르마니		
	관능성	표현성	역사성	순수성	기능성	다문화성
형태	타이트한 실루엣 혹은 노출로 강조된 클래머리한 형태		과거 복식에서 비롯된 형태	건축적, 기하학적 형태 단순한 라인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	기능적 형태	타민족의 민속복에서 유래된 형태
색채	드라마틱한 색채	대담하고 화려한 색채 및 그 조화		중성톤	중성톤	
재질	여성미가 강조된 실크, 레이스, 새틴, 네트	실험적 소재 및 독창적인 믹스		고급스러운 소재	자연 소재	
문양		화려한 프린트	바로크적 프린트 메두사 로고, 그리스 뇌문	무문	무문	전통적 모티프
트림 및 액세서리	안전핀, 가죽끈	비즈, 자수, 징 장식 과장된 액세서리	비즈, 자수	트림 배제 액세서리의 절제된 사용	트림 배제 액세서리의 배제	자수, 비즈

<표 2> 이탈리아 패션의 특성



순수성을 표현하였다. 기능 미학과 테일러링 전통의 접목은 그만의 실용적이고 심미적인 재킷을 탄생시켰고, 그의 의상에 있어 액세서리와 트림 등의 불필요한 장식과 프린트를 최대한 배제시켰다. 또한 액조틱 스타일의 작품에서는, 타문화의 전통 복식에서 유래된 형태 및 모티프를 참고로 여러 문화가 복합된 다문화성을 그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지난 50여 년간 이탈리아 패션은 뜨거움과 차가움의 이미지로 대별되는 두 그룹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공존 속에서 세계적인 패션으로 급성장하였다.

IV. 결론 및 제안

이탈리아 패션은 지형적 배경 속에 오랜 역사 동안 지켜 내려온 차별화된 산업 구조와 숙련된 기술,

유수한 문화에서 비롯된 미적 감각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전후에 도입된 발달된 기성복 생산 기술, 미국 실용 문화의 혼합으로 탄생된 엘레강스 스포츠웨어로 오늘날은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장악하였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국제 패션 무대에 후발대로 등장하여 이제는 주도적인 위치로 세계 패션을 리드하고 있다.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 이탈리아 패션의 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베르사체의 작품은 남부의 감성에서 비롯된 관능성, 표현성, 역사성을 특징으로 한다. 1) 관능성은 타이트한 실루엣과 과감한 노출로 인한 클래머리한 형태, 열정적인 색채, 여성적인 매력을 부가하는 소재, 안전핀과 가죽끈 등의 과격적인 장식 등에서 보여지며, 2) 표현성은 복잡한 프린트와 대담한 색채, 화려한 트림 및 액세서리, 3) 역사성은 과거 복식에서 비롯된 형태와 모티프가 사용된 의상 디자인에서 엿볼 수 있다.

반면, 아르마니의 작품은 북부 테일러의 수공 전통에서 출발하여 순수성, 기능성, 다문화성을 특징으로 한다. 1) 순수성은 단순한 라인·건축적 혹은 기하학적인 형태·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 형태, 중성톤의 색채 팔레트, 고급스러운 소재에서, 2) 기능성은 아르마니 특유의 기능적인 형태, 매치가 용이한 중성톤, 환경친화적인 자연 소재, 액세서리와 트림

등의 불필요한 장식과 프린트의 배제에서 보이며, 3) 다문화성은 타민족의 민속복식에서 비롯된 형태, 전통적인 모티브 등이 퓨전된 스타일에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그룹간의 선의의 경쟁은 오늘날의 이탈리아 룩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이탈리아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인 디자이너 작품의 분석에 그쳤다. 하지만 베르사체와 아르마니의 작품 세계를 이어 남부 이탈리아의 섹시 룩으로 명성이 높은 돌체 & 가바나와 북부 이탈리아 전통에서 유래한 우아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펼쳐가는 프라다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여 것 또한 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 의미 있는 과제라고 사료되어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1) 권미정 (2002).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과학기술, 제12집.
- 김 정 (1995).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 (1996). 이탈리아 패션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등.
- 2) Christopher Breward (2003). *Fashion (1st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2-213.
- 3) Valerie Steele (2003). *Fashion, italian style (1st e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 15.
- 4) *Newsweek*, Sept. 3, 2001.
- 5) *Newsweek*, Jul. 28, 1997.
- 6) Valerie Steele (2003). 앞의 책, p. 71.
- 7) Gertrud Lehnert (1998). *Fashion- A concise history (1st ed.)*. London: Laurence King, pp. 176-177.
- 8) Mirabella, *March*, 2000.
- 9) Ricahrd Martin (1997). *Gianni versace (1st ed.)*.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78.
- 10) 위의 책, p. 63.
- 11) Harold Koda (2003). *Goddess: The classical mode (1st 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p. 213-216.
- 12)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20th century (1st ed.)*. Munich: Prestel, p. 152.
- 13) 위의 책, p. 71.
- 14) Germano Celant & Harold Koda (2000). *Giorgio armani (1st ed.)*. New York: Guggenheim Museum, p. x x iii .
- 15) Christopher Breward (2003). 앞의 책, p. 292.
- 16)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20th century (1st ed.)*. Munich: Prestel, p. 152.
- 17) Valerie Steele (2003). 앞의 책, p. 60.
- 18) Germano Celant & Harold Koda (2000). 앞의 책, p. 127.
- 19) 위의 책, p. x x iii.
- 20) Germano Celant & Harold Koda (2000). 앞의 책, p. x.
- 21) 위의 책, p. 336.
- 22) 위의 책, p. 185.
- 23) 위의 책, p. 182.
- 24) 위의 책, p. 150.